

특집·호

기업윤리 브리프스

7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전문가대담기

한국기업 윤리경영이 나아갈 방향



한국윤리경영학회장
백기복 (국민대 교수)

기업의 윤리경영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영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커피농장에서 파키스탄의 신발공장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눈이 비 윤리관행을 감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아래의 몇 가지는 꼭 유념하도록 제언한다.

첫째, 행동하면서 정리해야 한다. 대부분 거창하게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선언한 것 중 몇 %나 제대로 실행했는지 알 길이 없다. 윤리수준을 공유시키고 행동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둘째, 갈등이 있어야 제대로 된 윤리경영이다. 누군가는 회사의 윤리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아우성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회사의 관행에 반기를 드는 등 사내 갈등이 있어야 윤리경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문화여야 한다.

셋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의 존재, 모습, 언어, 행동(존·모·언·행)은 비중이 다르다. 윗사람들의 존재가 아름답고, 모습이 당당하고 언어가 공손하며 행동이 곧아야 아랫사람들도 따라한다. 그러므로 윤리경영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이슈다.

진화하는 소비, 윤리적 소비

:: 윤리적 소비의 등장

윤리적 소비는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푸드 구매, 공정여행 등을 포함한다.

윤리적 소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윤리적 소비는 심각한 건강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세계 최초의 소비자 협동조합인 로치데일조합에서 시작되었다. 로치데일조합은 유해물질을 섞지 않은 밀가루와 버터, 설탕, 오트밀을 공동구매하여 지역 노동자에게 저렴하게 팔았는데, 이렇게 작게 시작된 윤리적 소비는 건강, 환경, 사회 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다.

넷째, 윤리차원에서 경영을 바라봐야 한다. 윤리가 조직 관리의 일부인 시대는 지났다. 윤리를 앞세워 경영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곧 경영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영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두루뭉술한 온정적 가치를 잘라내야 한다. 온정은 한국기업의 최대의 무기이자 최고의 위협이다. 잘못해도 감싸주고, 해고시켜야 하는 것도 자진사퇴를 받고, 불법을 저질러도 상황부터 이해해주려는 유치한 온정을 과감히 잘라내야 윤리경영이 바로 선다.

윤리경영은 이제 경영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며, 조직원 모두의 문제이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윤리경영은 실패하기 쉽다. 모든 조직원의 모든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직원 각자가 확고한 '윤리정신(ethical spirit)' 을 가지고 윤리경영의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였을까?

세계 공정무역인증기구(FLO)에 따르면 2009년에 공정무역 제품의 매출액은 약 33.9억 유로로 2008년 29.5억 유로 대비 약 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역시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7년 9.4억원에서 2011년 91.6억원으로 약 874% 증가하여, 국내 외에서 윤리적 소비가 강조되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2011년 공정무역 매출액 추이

윤리적 소비가 증가한 이유

LG 경제연구원은 윤리적 소비가 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현대인의 '의미(meaning)' 추구 경향이 소비 영역에서 윤리적 소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정신적 가치 추구 현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둘째, 가격 보다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혜택과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매한다.

셋째, 윤리적 소비가 쉽고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인터넷 발달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윤리적 소비가 쉬워지고 공정여행, 사회 책임 투자(SRI) 펀드 등 그 방법이 다양해졌다.

:: 윤리적 소비자는 누구일까?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연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업 윤리를 중요시 여기고 제품 구매 시 일정 부분이 기여되는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보다는 여성이 윤리적 소비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면에 계속됩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윤리경영에 초점.. 낙제점 받은 공공기관 '수두룩'

정부가 부채 급증과 방만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빼들었음. 6월 18일 발표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낙제점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1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명이나 늘었음. 기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16곳임.

전경련, 세미나 개최,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윤리경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를 열고 해외기업들의 사례와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음



금융지주 회장·사외이사 활동, 보수 공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사외이사의 활동 및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임. 지배구조 운용 실태에 대한 공시가 대폭 확대되는 한편 주기적인 지배구조 실태점검·보완이 실시되며, 또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시 구체적인 인선배경을 밝혀야 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6월 17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음

관세청, 공직 반부패근절... '청렴시민감사관' 발족

세관 일선 현장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감시하고 관세행정상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권고하는 '관세청 청렴시민감사관'이 발족되었음. 관세청은 21일 시민운동가와 재계단체 임원 및 수출입업계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발대식을 열고, 관세행정 및 일선 세관현장에서의 청렴성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음



서부발전, 전기안전공사등과 반부패 공동 대응 나서

서부발전은 6월 12일 본사에서 반부패 자율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반부패 청렴활동 교류와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협력시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음. 서부발전은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과 지난 2011년 8월, 2013년 4월에 각각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비리척결과 투명한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감사인력 파견을 통한 상호 교차 감사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번 실무자 회의에서는 각사의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현황 발표와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 앞으로 청렴활동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음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윤리적 소비자의 또 다른 특징은 브랜드를 가격보다 구매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추가 지불의향을 밝혔던 소비자의 44%만이 "가격은 브랜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윤리적 소비자의 60% 이상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고수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윤리적 이미지를 투명한 브랜드를 통해 윤리적 소비자를 끌어들이려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G8 17일 개막... 3T해법 찾는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탈세 근절을 위해 전쟁을 선포하였음.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북아일랜드 로크에른 리조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뤄진 의제는 세금으로, 이는 그동안 각국이 기업 불법 탈세와 합법적인 세금 회피에 각기 대응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해결해 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의장국인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미 지난 1월 이번 회의 의제를 '3T'로 잡았으며, 세금(Tax), 교역(Trade), 투명성(Transparency) 영문 머리글자를 딴 의제 '3T'는 세금 회피를 막아 투명성을 증대하고 대신 교역을 늘리겠다는 것임



英 의회 "금융사고 은행가 10년간 임금제한"

영국 의회가 금융사고를 일으킨 은행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임금 지급을 10년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추진함. 영국 의회 은행윤리조사위원회는 6월 19일 은행윤리 강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음.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은행인 대부분이 권한에 비해 책임이 느슨해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며 은행감독 강화를 주문하였고, 은행 경영진에 대한 법적 의무 도입 등 책임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보너스 등 임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영국 대형기업도 개인정보 불법수집"

영국 수사 당국이 로펌, 통신기업, 보험사 등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오랫동안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6월 22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중대조직범죄수사국(SOCA)은 해커와 사설탐정을 고용한 대형 기업의 불법 정보수집 행위를 2007년에 알고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환대사양 통신 케이블을 해킹해 민간인의 전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감청했다는 폭로에 이어 이런 사실이 공개돼 영국 정보기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몬트리올 시장, 부패 혐의로 체포

마이클 애플밤 몬트리올 시장이 17일 부패 혐의로 체포됐고 이날 오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AF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 보도하였음. 몬트리올에서는 다수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정부조사가 진행 중이며 1년 넘게 지속된 부패스캔들로 인해 전(前) 몬트리올 시장인 제랄드 트렘블레이 역시 지난해 11월 사임하였음. 퀘벡주의 반부패 조사 당국은 지난 2월 몬트리올 시청을 압수 수색해 관련 문서를 확보하였으며,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몬트리올 시청과 더불어 일부 자치구 부처 8곳을 압수 수색한 결과 사기와 배임 혐의 증거가 확보되었음



윤리적 소비자의 가격 vs 브랜드 충성도

나눌수록 커지는 아름다운 기부

:: 개인의 재능기부

'재능기부(재능나눔)'는 자신의 재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말한다. 재능기부는 종류에 따라 슈바이처 프로젝트, 오드리햅번 프로젝트, 마더테레사 프로젝트,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재능기부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휴가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젝트

	슈바이처 프로젝트	오드리햅번 프로젝트	마더테레사 프로젝트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활동 영역	의료, 보건, 건강과 관련된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분야	체육, 기능·기술 관련 분야	멘토링, 상담, 교육, 결연 분야
활동 예시	의사, 한의사, 수의사, 스포츠마사지, 수지침, 이혈, 발마사지 등 의료활동이나 후원, 보건·의료활동 보조, 대체의학요법, 보건위생, 응급처치 등	예술가, 문화관련 프로그램 제공, 전시·관람 등 기회제공, 사진·영상, 디자인, 미용, 메이크업, 미술, 모델, 환경 캠페인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 봉사 및 후원, 독거노인 어르신 돌봄, 그룹 홈·쉼터 지원 등	체육활동 및 교육, 집수리봉사, 운전, 배송, 엔지니어링, 기술제공 및 지원 등	결연, 상담, 멘토, 독서·학습지도, 법률·금융·세무·회계교육기회 제공, 장학지원, 심리상담 등

:: 기업의 재능기부

특기를 살리는 재능기부

기업 역시 저마다 특기를 살려 자신의 분야에서 기업의 '재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IT기업답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PC를 기증한다거나 Windows카피를 기증한다거나 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

피하고, 유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들, 그리고 정부와 NGO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였다. KT와 SK브로드밴드 역시, 인터넷 중독치료에 나서고 낙후지역에 IT교육을 하고 있다.

테마를 가진 재능기부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이미지와 브랜드에 맞게 테마를 갖고 재능기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스메틱 기업답게 '여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핑크리본 캠페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아름다운 세상기금, 이국땅에서 차별과 편견,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역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대표되는 '환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신혼부부 나무심기'와 '그린캠프' 등의 체험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유한킴벌리는 '별목을 해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나무를 살리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의 핑크리본 캠페인



유한킴벌리의 나무심기 캠페인

꾸준한 재능기부

기업의 재능기부 활동이 소비자에게 기억되고, 이를 통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 재능기부 활동이 소비자에게 기억되고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청렴정책'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근절의 초석이 되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공익과 사익의 갈등상황 등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금품수수금지, 알선·청탁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03년 5월부터 시행되어 1,361개 공공기관의 160만 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월 31일 서울중앙우체국(Post-Tower)에서 개최하였다.

권익위 이성보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줄 것이라는 높은 기대 속에서 10년 전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공직자들이 연루된 잦은 부패사건 등으로 국민 불신은 줄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해야하고,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초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기업의 '갑의 횡포'로 불리는 불공정한 업무행태로 커지고 있는 국민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더 공정하고 통합된 사회로 도약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 민간 반부패 정책수단으로 더욱 강화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이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 우리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함과 동시에 공익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신뢰기반 및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익신고 대상은 180개 법률이며,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지난 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건축조합 비리 등 우리사회 부패 지수를 치명적으로 낮추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공익신고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부패척결의 큰 걸림돌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국민생활에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침해 행위의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로서 기본전제라고 한다면, 민간부문에 대한 반부패 정책 수단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2011. 3.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과 2011. 9.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본격 시행



어떻게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윤리적 소비란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간과 동물,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윤리적인 제품을 찾고, 어떻게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가치있는 소비"를 위해 윤리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윤리적 제품 마크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세부 사항을 모두 체크하면서 제품을 평가하거나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시민 단체와 사회 지도자, 각종 비정부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각종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마크(라벨링)를 통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공정무역 인증기구(FLO)의 '공정무역인증마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로고'(인증기관: 고용노동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민간 인증기관 인증가능)'
	카본트러스트의 탄소발자국 마크
	Choose Cruelty Free의 'not tested on animals'
	RSPCA의 'Freedom Foods'
	FSC의 'Forestry Stewardship'

윤리적 소비 제품 관련 마크

:: RED캠페인

다국적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RED캠페인은 RED제품에서 얻은 수익을 에이즈 등의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캠페인이다. RED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품과 브랜드 로고 디자인 일부를 변경하여 RED(자신의 브랜드명)를 붙여 판매한다.

예를들어 스타벅스 커피의 경우, 빨간색 디자인에(스타벅스) RED를 붙이는 형식이다.

RED캠페인은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동일한 공익적 캠페인을 벌이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익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D캠페인은 각각의 제품들에게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가치 있는 소비'라는 '특별함'을 통해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에 불을 붙여준 접점점이 되고 있다.



RED캠페인의 제품들

:: 그린스포츠 캠페인

그린스포츠 캠페인은 인기스포츠에 친환경 활동을 접목하여 실제적으로 환경보존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말한다. 2010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는 오벌(Oval)링크 경기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지하철역을 신설하여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통체증 해소 및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국내에는 SK와이번즈가 그린스포츠 캠페인을 지향하고 있다. SK와이번즈의 홈구장인 문학구장에는 특별 관중석으로 태양광 집열판 지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비비큐존을 설치하였고, 유니폼은 에코에버러는 친환경 섬유로 제작하였다. 또한 '그린 봉사대'를 발족하여 녹색 캠페인의 취지와 활동을 알리고 있다.

1. 온실가스 ZERO화

- ① 태양광 비비큐 ZONE 설치
- ②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③ 전기자동차(볼펜카&서프터차량)운영
- ④ 자전거 주차장 설치
- ⑤ 자전거 이용 관람객 인센티브 지원

2. GREEN 구장 조성

- ① 외야 그린 존 조성
- ② 새싹 야구장 조성

3. 녹색 생활 실천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 ① 녹색 생활 실천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 ② Green day 행사 실시
- ③ Green 홀런츠 운영

4. 사회참여 프로그램

- ① 그린 클라닝 타임 캠페인

SK와이번즈의 그린스포츠 캠페인

서적리뷰

장대철(KAIST 경영대학)

::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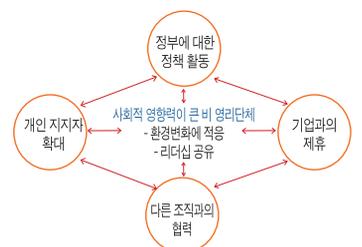
본 고에서는 현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CRUTCHFIELD AND GRANT(2008)의 '선을 위한 힘'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습관을 제시하고 있다.

- (1) "정책 활동과 현장 활동을 함께 해라": 관련 정책 발의나 지지 활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정부 지원을 받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시장을 움직이게 하라": 성공한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 기업은 시장과 함께 작동하고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 단체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 (3) "열성 지지자를 양성하라": 이들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서로 다른 감성적

경험들을 자기 단체의 사명이나 핵심 가치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방법들을 찾아냈다. 자원봉사자, 기부자, 지문위원을 단체의 대의를 자발적으로 널리 알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 (4) "다른 비영리단체와 연대하라": 성공한 단체들은 다른 비영리단체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대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 (5) "완벽하게 적응하라":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한 가지 혁신을 또 다른 혁신으로 연속해서 바꿀 줄 알았다.
- (6) "리더십을 공유하라": 이들 지도자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기업가 기질을 타고났지만 선을 위한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과 능력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책에서 성공요인으로 6가지 습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매우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Q1. 투명경영, 윤리경영, CSR,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투명경영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과정과 기업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영 방식을 말하며, 윤리경영은 투명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까지 일부 도입되었으나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기능이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갖는 책임으로서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하여 현재는 사회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수용하는 경영입니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은 투명경영, 윤리경영, CSR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지속가능경영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기법입니다. CSR이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성을 의미한다면,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미래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각각의 영역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SR과 지속가능경영은 경제적 건전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이 균형적으로 접근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CSR의 광의적 개념과 지속가능경영이 광의적 개념으로서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Q2.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윤리경영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며, 무엇보다 Integrity(성실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EO와 임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직원들의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중요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패방지를 위해 권고하는 내용 중에는 '하이 로드(high road)'와 '로 로드(low road)'가 있습니다. 하이 로드 윤리경영은 철학과 주인의식을 통해 임직원 프라이드를 높임으로써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윤리경영으로 건강한 기업정신과 철학을 통해 열정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회사를 만들어 주는 포지티브를 높여주는 윤리경영을 말합니다. 즉,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형성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경영기법으로 CEO와 임원의 하이 로드 윤리경영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 로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의 윤리경영으로, 법적 해이에 빠진 임직원들을 찾아내고 통제하는 윤리경영이며, 네거티브를 최소화하는 윤리경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 측면에서는 로 로드 윤리경영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실천적 윤리를 위한 자기관단 및 조직기관을 할 수 있는 진단 Tool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윤리경영 인식도를 측정하는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며,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나 솔직한 의견을 듣는 것은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두 가지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내 윤리경영 인식도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업입니다. 일부 기업은 설문지표와 윤리경영 정량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연도별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단지표의 경우 개별 기업의 윤리경영 핵심 사안 및 업종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통의 틀 보다는 자기만의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적 기업관행 및 기업문화, 반부패 인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우리 회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묻고 내부 인식도에 대하여 Cross-Checking하는 작업입니다. 회사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비윤리적 요소들이 숨어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변화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를 대변하는 임직원들이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에서 윤리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묻고 그 추이를 파악해야 이해관계자 참여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퀴즈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말하며, 친환경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푸드 구매, 공정여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 1) 경제적 소비 2) 사회적 소비 3) 환경적 소비 4) 윤리적 소비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고,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박강수님, 이혜련님, 정어흥님, 이재철님, 정현상님입니다.
 ※ 보내주시는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리경영 Rolling Paper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가 생각하는 '윤리경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함.



1. '윤리경영'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2. '윤리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3. 최근 '윤리경영'과 관련된 이슈는?
4. '윤리경영'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 혹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우건설 윤리감사팀 김준모 과장

- <밥이다> 먹어야 살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 서로 win-win하기 위해서
- 앞으로는 윤리경영을 앞 다퉈 홍보하지만 뒤에서는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
- 다수의 인식 부족과 생활화가 정착이 안돼서

현대하이스코 CSR추진/업무개선팀 신상진 과장

-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 기본 사회 활동
- 사회적, 대승적 입장 보다는 최근 기업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윤리경영 문제 및 올바른 자세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겁다보니 이해하기 힘듭니다

KT CSV기획팀 CSV단 커뮤니케이션실 한상철 차장

- 사회 시민으로서의 기업이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 잠재 리스크 방지, 경영 왜곡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 불공정한 갑을문화,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등
- 최고경영자, 요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 미흡 등

한국셀섹유 김동수 전 사장

- 윤리경영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를 주는 경영
- 기업 활동 허가 (license to operate) 권한을 가진 사회(이해관계자 집합체)가 기업에 대한 기대 변화 · 투명성요구, 따라서 기업 활동 허가 유지 위해
- 반 부패, 공정 경쟁
- lip service가 아닌 최종 결정권자의 진솔한 의지와 자세

국립공원관리공단 성과관리실 김효진

- 기업만의 이익이 아닌 공중의 이익 추구
-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아야 기업이 존속하기 때문에
- 갑을, 고위층 비리, 부도덕
- 사회적 리더들의 부도덕성

파라다이스 윤리경영실 이미영 과장

- 달걀 썩기(다같이 하지 않으면 썩기를 실패하는)
- 휴익인간 실현
- 경제민주화
- 모두 바라는 바가 다 다르다

SK C&C 윤리경영팀 신중철 과장

- 강한 기업문화와 기업 경쟁력의 바탕으로 모든 의사결정의 강력한 판단기준
- 기업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업내부의 정신적/물질적 자산을 보호하고 사회로부터 합당한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갑을문화", "상생경영"이 주요 이슈입니다
- 지금까지 기업 내부적으로는 규제활동, 외부적으로는 자선활동이 주된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상생경영팀 김민석 대리

- 전직원들이 함께 원칙을 준수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경영
- 최근의 기업의 윤리경영과 관련한 문제에서 보았듯이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제성과와 지속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갑과 을의 관계
- 직원 한 두명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켜도 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

외환은행 김민수 차장

- 기업의 수명을 유지시키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요소
- 윤리(적)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기업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 "갑" 계약자의 "을" 계약자에 대한 갑압적인 영업행위 등에서 파생된 문제, 비자금 사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파렴치 등
-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 부족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방식)과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신공조(또는 만연된 단기성과(실적)주의)

웅진씽크빅 윤리경영팀 이희원 과장

- 기업의 경쟁력이다
-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적 공헌
- 상생경영
-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지속적 관심), 윤리경영을 강조함에도 발생하는 돌발적 risk

현대오일뱅크 감사팀 하태형 차장

- 공정 경쟁 경영
- 윤리경영을 통해 공정한 사회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다양한 다수의 사회 각 구성원의 창조적 능력이 발휘됨
- 갑과 을의 관계 개선
- 회사의 재무적 손실과 이미지, 명예에 손실이 예상될 때의 딜레마

한국타이어 CSR팀 박선아 대리

- 반드시 해야 하는 것
- 리스크 관리 측면
-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 부패
- 실행력(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등)